

This poem by Kim Su-young translated by Adam Bohnet, and is dedicated to the government of my home province of Alberta. Guess why ☺. I translated it for fun.

The Korean text is based on that in *Kim Suyŏng chŏnjip* (Seoul: Minŭmsa, 2013), volume 1, pages 19, 22, 101-103.

2. *Time Magazine of America* (written in 1947)

The clothes of the Chinese
Are like the passing waves.
I was a fool to seek out a new sea crossing.

Opportunity, oil drops and even apples.
Firming myself up with the proper outlook,
I have travelled this route countless times.
And so a water-drop condenses and falls.
It bites into the rock.

Politician of Petroleum!
You look as lovely as your print-type.
When, on a boat returning from America,
I rested my head over the railing and wept,
It wasn't because of a woman.

Today once more I read the print-type,
I gaze at the endless procession of print-type,
And my eyes are fixed on the Politicians of Petroleum.

〈아메리카의 타임誌〉

흘러가는 물결처럼 지나인 (支那人)의 의복
나는 또 하나의 해협을 찾았던 것이 어리석었다.

기회와 유적(油滴) 그리고 능금
올바로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나는 수없이 길을 걸어왔다
그리하여 응결한 물이 떨어지다
바위를 문다

와사 (瓦斯)의 정치가여
너는 활자처럼 고웁다
내가 옛날 아메리카에서 돌아오던 길
뱃전에 머리 대고 울던 것은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다

오늘 또 활자를 본다
한없이 긴 활자의 연속을 보고

와사의 정치가들을 응시한다.

Same poem but with more Chinese characters <아메리카의 타임誌>

흘러가는 물결처럼 支那人의 衣服
나는 또 하나의 海峽을 찾았던 것이 어리석었다.

機會와 油滴 그리고 능금
올바로 精神을 가다듬으면서
나는 數없이 길을 걸어왔다
그리하여 凝結한 물이 떨어지다
바위를 문다

瓦斯의 政治家여
너는 活字처럼 고읍다
내가 옛날 아메리카에서 돌아오던 길
뱃전에 머리 대고 울던 것은 女人을 위해서가 아니다

오늘 또 活字를 본다
限없이 긴 活字의 連續을 보고
瓦斯의 政治家들을 凝視한다.